

Benzene, 아시아시장 “폭풍 속 고요”

FOB US Gulf 톤당 466달러로 48달러 폭등 ... Toluene은 51달러 올라

Benzene 가격은 11월7일 FOB US Gulf 갤런당 155.0-156.0센트로 톤당 466달러를 형성하며 48달러 폭등했다.

미국에서는 11월 들어 에너지를 비롯해 BTX 3제품 모두 강세로 전환됐는데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정체되는 물리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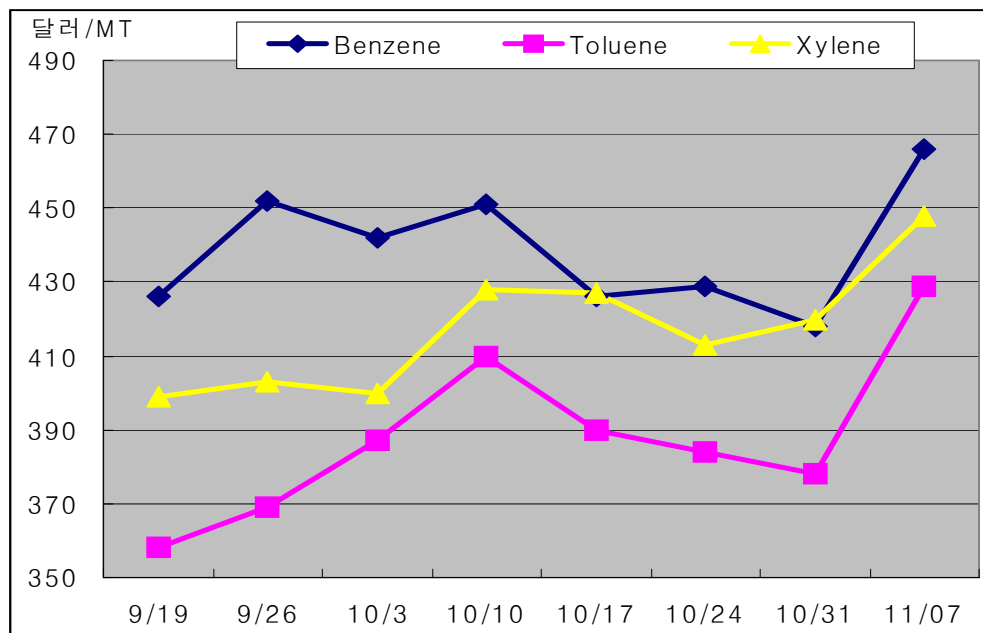
Toluene 가격도 11월7일 FOB US Gulf 갤런당 140.0-145.0센트로 톤당 평균 429달러를 형성하며 전주에 비해 51달러 폭등했고, Xylene은 US Gulf 갤런당 146.0-149.0센트로 톤당 평균 448달러를 형성해 28달러 급등했다.

미국 벤젠 시장에서는 일본 Nippon Oil의 Mizushima 소재 Reformer 플랜트의 생산능력 확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벤젠을 증설하면 아시아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톨루엔 시장은 에너지 코스트가 이슈로 NYMEX의 12월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톨루엔 가격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톨루엔 시장도 Nippon Oil의 Reformer 플랜트 증설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일렌은 벤젠 및 톨루엔에 비해서는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Polyester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BTX 가격추이(FOB US Gulf)



한편, 아시아 BTX 가격은 미국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공급선들의 눈치경쟁으로 시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13>